



금융위원회

보도 참고 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6. 24.(금)	
담당 부서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650)
<총괄>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54)
			사무관	신용진 (02-2100-2644)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 유관기관 합동 「증시점검회의」 개최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경계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 주요 논의내용 >

- ☐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는 **국내외 거시환경 급변**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
- ☐ 우리 증시 변동폭은 다른 국가 대비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및 **쏟아짐매매**는 **경계**할 필요
- ☐ 향후 증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단계별로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임

- ☐ '22.6.24일(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증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증시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2.6.24.(금) 16:30~17:30 / 한국거래소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거래소·금투협·증권금융 담당 임원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54)
			사무관	신용진 (02-2100-2644)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책임자	국 장	안승근 (02-3145-5650)
		담당자	팀 장	김희영 (02-3145-5636)
<공동>	한국거래소	책임자	본부장보	송영훈 (02-3774-8505)
		담당자	부 장	정규일 (02-3774-8580)
<공동>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부 장	진양규 (02-2003-9100)
		담당자	과 장	정봉석 (02-2003-9104)
<공동>	한국증권금융	책임자	부 장	류정호 (02-3770-8530)
		담당자	팀 장	서윤상 (02-3770-8534)

모 두 발 언

2022. 6. 24.(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일 코스피·코스닥 지수 모두 반등하긴 하였으나,
최근 우리 증시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화 당국의 강도 높은 통화긴축으로
그간 풍부하게 유입되던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 등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경기 민감도가 높은 주력 업종 구조와
높은 수출입 의존도 등으로

급격한 국내외 거시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 증시의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것이 증시 변동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증시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증시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쏠림 매매는 경계하고,
보다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도 최근의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현재 증시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황에 따른 시장안정조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